

영암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조사 실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0427필지 규모

국비 20억원 지원받아...2030년까지 완료 목표

영암군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0,427필지, 8,911천㎡"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

지 78,892필지 중 6,00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국비 20억원(전국 1위)을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는 2022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11개지구 중 먼저 미암 미암지구 및 선항지구, 덕진 농호지구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



축물 저축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토지 가치 상승은 물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일괄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매일매일 걷는데이'

오늘부터 31일까지...15만보 달성 목표

함평군은 생활 속 군민의 걷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매일매일 걷는데이 3월 챌린지'를 추진한다.

'워크온'은 개인별 목표 걸음 수, 그룹 내 걷기 순위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걷기 활성화 모바일 앱이다.

'챌린지'는 월별로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3월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15만보 달성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1만원), 건강꾸러미 등 다양한 보상이 지급된다. 스마트폰 소지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 앱 '워크온'(walk on)을 다운 받아 함평군 커뮤니티 '매일매일 걷는데이'에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1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3월 14일~4월 1일 등기우편 접수

목포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

는 기관으로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200만원으로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1순위이며, 2순

위는 폐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68724,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면 되고, 4월 1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 (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기자



신안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상황 보고회

신안군은 8일 박철승 부군수 주재로 국실과 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는 정량 89개, 정성 23개 지표로 총 112개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회는 전년도 부진지표에 대한 점검과 올해 각 지표 매뉴얼과 평가목적, 평가기

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첫 과정이다.

박철승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의 정성평가는 우리군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우수한 시책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신안군에 부진한 지표 등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어린이 공원 새 단장 마치고 개방

노후 포장 걷어내고 '폭신폭신킨환경 탄성 포장재 설치

영광군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노후 탄성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 소재의 탄성 포장재를 설치해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주된 놀이공간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주변에서 낙상으로 인한 부상 예방 등 안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임을 고려해 각종 세균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항균 성능을 갖춘 KS 인증 바닥재를 사용했으며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탄성포장 윗면에 공룡을 그려 넣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 활동에 지친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나서

무안군은 3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공장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고, 택배비는 건당 최대 1만 원,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영세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처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체국 소평물, 남도장터,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은 물론 TV홈쇼핑, SNS를 통한 제품판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